

파사무용단의 <붓다, 일곱걸음의 꽃>의 세 번째 무대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발심하고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진리를 구현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스스로 혼란하고, 잘못된 가치로 물들어 가는 척박한 시대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깊게 돌아보게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부처님의 뜻을 올곧게 실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삶과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현대무용으로 풀어내어 인류의 스승이자 우리의 좋은 벗으로 안내하는 파사무용단의 노력은 불교계의 커다란 귀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파사무용단 안무가 황미숙 선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추어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공연을 제작하는데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실로 <붓다, 일곱걸음의 꽃>은 단순히 부처님의 일생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스며있기에 불자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붓다, 일곱걸음의 꽃>은 2012년 초연에 이어 3년 째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작품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현대적 감각의 무용예술을 통해 정신의 가르침까지 널리 나누어온 파사무용단의 진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자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붓다, 일곱걸음의 꽃>을 관람하여, 부처님의 고뇌와 갈등, 기쁨과 희열을 함께 느끼고, 현실의 삶을 향기롭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자 승